

하원의원 영입에 사회공헌 강화… 현대차 “美 시장 지켜라”

미국 상호관세 돌파 전략

드류 퍼거슨 전 연방하원의원 선임
미국 정부·의회와 소통 총괄 역할
‘GPO’ IRA 보조금 축소방침 대응
뉴욕 오토쇼에 2000평 전시관 차려
팰리세이드 등 차량 28대 선배고
소아암 환아 누적기부 2.8억 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이 18일 개막하는 2025 뉴욕 국제오토쇼(뉴욕 오토쇼)에 대규모 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북미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로 차값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미국 연방하원 4선 의원을 영입하는 등 대관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신형 시장과 달리 대형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은 미국 시장 특성을 고려해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일 단행한 수입차 25% 관세 부과 완화를 위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류 퍼거슨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5월 1일자로 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에 선임한다. 드류 퍼거슨 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앞



현대자동차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디 올 뉴 팰리세이드를 북미에 최초로 선보였다. 이상엽(왼쪽부터) 현대제네시스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DO(글로벌디자인본부장) 겸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사장, 올라비시 보일 현대차 북미권역본부 제품기획 및 모빌리티 전략담당 Senior Vice President, 호세 무노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 CEO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으로 미국 정부·의회와 현대차그룹 사이의 소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 위치한 글로벌 대관 조직인 GPO(글로벌 전략실)와 HMG워싱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미국 관세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정부와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통’ 호세 무

노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현대차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하며 북미 시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2023년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 역으로 영입한 뒤 지난해 말 대외협력 담당 사장으로 임명했다.

현대차그룹이 대관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물린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17일 뉴욕 오토쇼가 진행되는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 가장 큰 규모인 약 7265㎡(약 2200평)의 전시관을 차렸다.

현대차는 뉴욕 오토쇼에서 ‘디 올 뉴 팰리세이드(팰리세이드)’ 등 차량 28대를 선보인다. 팰리세이드는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차세대 하이브

리드 시스템을 갖췄다. 북미 시장에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날 현대차는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한 ‘팰리세이드 XRT Pro’도 공개했다.

또 현대차는 북미 시장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오픈 온 휠스’ 캠페인의 27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2700만 달러를 추가 기부했다. 이에 따라 누적 기부금은 2억 7700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기아는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EV9 나이트폴 에디션·K4해치백·EV4 등 신차 3종을 포함, 총 21대 차량을 전시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EV9 나이트폴 에디션’은 기아 전동화 라인업의 고급스러움과 정체성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기아 주력 SUV들인 ▲셀토스 ▲스포티지 ▲텔루라이드에도 적용돼 있다.

또 북미 충전 표준(NACS)을 채택해 테슬라 수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아는 올해 2분기부터 EV9 나이트폴 에디션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판매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는 기아의 첫 번째 전동화 세단 EV4를 북미에서 처음 선보이는 동시에 EV4 해치백 모델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상법개정안·내란특검법 등 7개 법안 폐기

국회 본회의의 재표결 8건 중 7건 부결

국민의힘 “재표결 법안 부결 뜻모아
우리당 108석, 악법 폭주 안전장치”

민주당 “동일 시안, 정부 추진땐 찬성
특정 정당 추진땐 반대, 신뢰 없어”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안 등 행정부 수반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한 결과,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불인 법안은 내란특검법안(윤석열 정부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군특검법(명태군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총 8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 부결에 뜻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당의 108석은 이재명 세력의 악법 폭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부결의 뜻을 모았다.

이날 경영계의 관심을 모은 건 법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군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동의한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TF(테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갹감 빼먹듯 빼먹고, 하루 아침에 우량주가 불량주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사안도 정부가 추진하면 찬성하고 특정 정당이 추진하면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본회의의 표결 때는 상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재표결 때는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승계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계기로 찬성 표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했다.

다만, 경영계에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내내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올해 공공기관서 2.4만명 신규 채용”

최상목 부총리, 청년 채용 간담회
“청년 일자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
정부, 차질없는 목표 달성 뒷받침”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업·준(準)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청년 채용 규모를 2만 명 이상으로 잡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 고용난 완화’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일자리는 청년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공기업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는 곧 복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공공기관이 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민간 기업의 수시 채용 확대 추세를 언급하고, 경력 축적을 위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인턴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취업 준비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청년 취업 희망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신입직원 합격사례 공유, 취준생 간담회 등 취업정보 제공 ▲청년인턴의 직무경험 확대 ▲청년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제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했다. 기관장들은 청년들의 건의사항에 공감을 표하고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